동향 110530-01	과수산업발전대책(수출유망 산업으로 육성)

2011.05.30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5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「과수를 수출유망 산업으로 육성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❑ 수립배경

❍ 한·칠레 FTA 이행에 따른 과수산업 피해대책으로 '04년부터 '10년까지 1조 2,498억 원의 FTA 기금을 조성하여 과수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, 한·미 및 한·EU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국내 생산·유통 구조의 다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대책을 보완한「과수산업발전대책」을 마련

❍ 보완된「과수산업발전대책」의 주요내용: 1)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, 2) 과수산업 경쟁력제고, 3) 농가 경영안정, 4)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·안전과실 생산 및 수출확대

❑ 주요내용

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과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6,805억 원을 지원

❍ 비용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비가림시설, 품종갱신, 방풍·방조시설 등 **생산시설현대화** 추진('11～'17) : 24천ha, 3,732억 원

※ 생산시설 현대화율 : ('09) 19% → ('17) 35%

❍ 집단화된 생산단지, **수출 전문단지(55개)**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정비

※ 용수개발, 경작로 확·포장 등('11～'17) : 3.6천ha, 950억 원

❍ 비용절감형·고품질화 **재배기술 및 재배법** 보급 확대

- 사과 : 초밀식재배 확대('07 : 18%→'17 : 65)

※ 초밀식재배 시과원 효과 : 노동력절감(162→110시간/10a), 생산비 절감(890→400원/kg)

- 배 : Y자재배 확대('07 : 26%→'17 : 60)

- 포도 : 비가림재배 확대('07 : 52%→'17 : 90)

※ 포도 비가림 재배효과 : 약제살포(13→5회), 당도(13.7→14.4°Bx)

❍ 무병묘 공급을 위한 원종관리 및 증식, 바이러스 검정 등 **"중앙묘목관리센터"** 기능 강화

- 연간 과수묘목 수요량의 60%를 무병우량(無病優良) 묘목으로 공급

❍ 현재 1.5ha이상 과수전업농 23천호를 '17년까지 25천호로 확대하기 위해 **과원영농규모화사업** 지원

- 전업농이 전국 과실생산량의 60%를 생산하도록 하여 농촌 고령화에 대비

※ 전업농 경영규모 : ('09) 56천ha(과수 재배면적의 36%) → ('17) 65(45)

❍ 과수산업발전 및 기반유지를 위해 한·칠레FTA 비준일('04.5) 이후 **신규 조성된 과원에 대해 FTA사업 지원**

- '04.5월～'10.12월 이전에 조성된 과원(단, 한·칠레 FTA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) 및 전문수출단지 조성시 지원

※ 그 동안 한·칠레FTA 비준일('04.5) 이후에 조성된 신규과원에 대해서는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지원 등을 제한

주산지 권역별로 과실 전문APC 30개소('10까지 17개)를 설치하고 과실 유통물량의 30%를 처리하도록 하여 유통구조 개선

❍ 생산자 조직화(공동선별, 공동출하), 산지규모화 등을 추진하여 **과실 전문 APC를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**

- 전문APC설치('11~'17) : 13개소, 825억원('10까지 17개소, 1,029억원)

- 전문APC에 신선편이식품 및 학교급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과실 종합물류센터 역할 수행

※ 상품화(전처리·가공시설)설비, 저온저장고, 냉장차량 등 패키지 지원

❍ 과실 전문APC를 중심으로 기존 소규모 선과장·일반APC(45개)를 통·폐합하여 **중규모(5~10천톤) 전문APC로 확대**

❍ 신규 과실 전문APC 지원시 지원규모 및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

-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유형(지자체)은 지원 배제, 일반유형(농협 등) 위주 지원하여 책임경영 강화

❍ **과실 포장간소화**를 통한 비용절감 및 소포장유통 활성화 추진

- 부속포장재(과실 띠지, 스티커, 팬캡 등) 사용 감축, 고급 칼라인쇄 규제, 친환경포장재 사용 추진

※ 과대 포장하는 생산자·생산자단체, 유통업체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

- **공영 도매시장의 과실 소포장 유통활성화**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

※ 소포장 기준 : (기존) 15kg → (개선) 10, 7.5, 5, 3, 낱개 비닐포장 등

수입개방으로 인한 소극적 국내피해 대응에서 공세적 수출 추진으로 신선과실 수출을 '17년까지 2억달러로 확대('10년 84백만달러)하고, 과수산업을 FTA 대응 미래 수출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

❍ 미국(Zero Tolerance제도), 일본·대만(Positive List System) 등 식품안전 관리에 대응한 **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체계** 확보

❍ 수출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품목별 **수출 선도조직**을 육성하여 생산의 조직화·규모화를 촉진

- 수출 선도조직 : ('11까지) 사과, 단감 → (확대) 배, 감귤, 포도 등

- 우수조직에는 물류비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
※ 인센티브 : 기반조성 100~150백만원, 수출활성화 표준물류비의 12% 이내

❍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**수출물류비** 지원 총액의 상한을 축소하고 성과중심으로 지원하여 수출업체들의 자생력 배양

※ ('10) 표준물류비의 45%이내(중앙 15, 지자체 30) → ('11) 35(중앙 10, 지자체 25)

❍ 저품위과실 수출 지양으로 한국 과실에 대한 이미지 제고

-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저가 및 저품위 과실 수출 제한

※ 덤핑·과당경쟁, 상호비방 등 수출 질서를 문란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(수출물류비 및 해외 판촉비 등 수출지원 대상에 제외)

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우량 신품종 육성·생산비 절감기술 개발,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R&D 지원을 강화

❍ 사과·배 등 **수출전용 과수 품종** 육성

※ 사과 : (현재) 3품종(후지, 홍로, 감홍) → ('15) 4(홍금) → ('17) 5(그린볼)

※ 배 : (현재) 5품종(신고, 원황, 화산 등) → ('15) 7(한아름 등) → ('17) 8(신화)

❍ **지구 온난화**에 적응 가능한 사과·배·감귤 품종 개발

- 착색이 쉬운 품종(사과), 저온에도 개화결실이 잘되는 품종(배), 부피과 발생이 적은 품종 및 5~6월 출하용 품종(감귤) 등

※ 품종선발('22년까지) : 사과 3~4품종, 배·감귤 각 1~2품종

❍ **저투입 고효율, 노동력 절감** 등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

- 자가 적과성이 높은 품종(사과), 해거리 방지기술(감귤), 노력절감 및 생산시설 개선(포도)

- 사과 세장방추형, 포도 개량일자형, 복숭아 Y자형 등 한국형 과수 수형개발

❍ 유통기한이 짧은 과종(포도, 복숭아 등)에 대한 유통기한 연장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

- 예냉, 선도 유지기술 등 수확 후 저장·유통 신기술 및 기능성 포장재 개발

※ 복숭아의 신선도 유지기간 : (현재) 4~6일 → ('17) 10일 이상

❍ 과실 가공식품 소재이용 연구개발 촉진

- 고부가가치 식품·기능성 소재, 미래수요대응 식품기술 등 연구

- 기능성제품, 다양한 가공제품 등을 개발하여 신규 수요 창출